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12월 25일 (제87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

터널과 동굴!
완전 다른 어두움이다. 터널은 들어갈수록 곧 빛이 나타나지만, 동굴은 들어갈수록 더욱 철쭉 같은 어두움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터널에 비교한다. 터널 속에 있는 자들은 오직 빛을

향해 가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아직은 보이지 않으나 계속 가면 빛이 나온다는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레일삼아 참고 인내하고 가면 반드시 소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동굴에 들어간 자들은 시험을 받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가면 정말 어두움에 휩싸이고 길이 없다. 그들이 살 길은 다시 돌아나오는 것이다. 회개하고 빛을 향하여 돌아 나와야 산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2016년, 정말이지 다사다난(多事多難)이

란 표현이 적합한 한 해였다. 국내외적으로 힘겨운 시간이었다. 너나할 것 없이 다들 힘들다, 못살겠다 아우성을 친다. 절대 희망이 없는 듯한 절망에 빠져 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 나와야 할 동굴에 갇힌 자들인지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동굴에 갇힌 것이라면 우리는 지체없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동굴에 갇혀있든,

터널을 통과하든 살 길은 있다는 것이다. 터널을 통과하면 곧 빛이 보일 것이고, 동굴에서는 참회하고 돌아서면 산다. 절체 절명은 없다. 그래서 감사하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터널에 있는 자나 동굴에 갇힌 자 모두에게 빛이 되어 주시려 오셨다. 그 빛을 향해 가자. 동굴에 있으면 회개하고 나가고, 터널에 있거든 조금 참고 나가라. 빛 되신 예수님의 품으로.
빛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리며, 온 성도와 함께 찬양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30:11~20)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학교 다닐 때 공작시간이란 게 있었습니 다. 찰흙이나 나무로 사람모양도 만들고 동물형태도 만드는 시간이지요. 그 때 보 면 어떤 친구는 정말 감탄이 나올 만한 멋진 작품을 만드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암 만 봐도 뭘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 으로 만드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 70을 바라보며, 또 목회 32년 을 지나며 '인생은 내가 만드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작시간에 만 드는 작품이야 내가 못 만들면 짝꿍이 대 신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은 오 루트 내가 만드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 런데 운명(運命)이란 '돌 운, 운전할 운' (運)과 '목숨 명'(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내 삶을 내가 운전할 수 있고, 내가 돌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 역할 수 없는 힘이나 정해진 삶의 틀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30:15) 라고 말씀 하심으로,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어떻 게요? 바로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것으로 결 정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32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나름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말씀 드리자면 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된 삶 을 사는 반면, 남을 저주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렇까 생각해봤는데, 이는 마태복음 10장 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 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 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 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 이니라"(마10:11~13). 예수님은 제자들 에게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의 평안 을 빌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 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 니다. 그런데 '축복' 대신에 '저주'를 넣어 서 생각해 보면 심각해집니다. 내가 저주 를 할 때 저주를 받을만한 사람이면 받겠 지만 혹시 아니라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왜 당신 삶이 그리 힘들었나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 축복의 말을 해야 합 니다. 저주의 말을 했다가 내게 되돌아오 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저주하 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 저

주가 다윗에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자 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임해 세 아들들 과 함께 칼에 죽임을 당했고, 그 시신마저 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 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살려주고 축복하고, 그 의 아들까지 거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 으며 시온의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아합이나 발라단, 하만과 헤롯의 결말을 보십시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못 입듯하더니 저주가 물 같이 그 내부에 들어 가며 기름 같이 그 뼈에 들 어 갔 나 이다" (시 109: 17 ~18).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작고하신 제 민 음의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 누군가 자네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 면 그냥 밟혀주게나. 내가 밟혀서 그 사 람이 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설령 그 사람이 자네를 밟거든 비록 힘들 어도 이 목사는 절대 나 살자고 다시 그 사람을 밟는 일일랑 하지 말게." 당시 가 갑게 지내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 고 그 일과 무관한 저를 모함하고 저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 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 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그를 축복했더 니 그 축복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축 복기도를 할 때도 흔들려 놀려 넘치게, 제 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꼭꼭 눌러서 해 줍니다. 기도 받는 사람이 받으면 그가 잘 돼서 좋고, 행여 그가 내 기도를 사람의 말 로 듣고 그저 흘려버린다면 그것이 제 것 이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입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하여 만족하 게 되느니라"(잠18:20). 누구든 입술의 열 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드 리면 저주를 하면 그 저주의 대가를 톡톡 히 치르게 되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 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시나무를 뿌리면 가시나무가 나서 여 기 찢리고 저기 찢리게 되나 사과나무를 심으면 여기저기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저주할 때 같이 저주로 맞대

응하지 않는 정도에 만족하시는 것 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주하는 상대를 축 복하기 원하 신 다 는 사 실 말

입 니 다. 우 리 생각에 는 저주를 퍼붓 는 자에게 똑같이 저 주하지 않는 것도 칭찬 받을 만 한데, 나를 핍박하고 헐뜯는 자와 맞장 뜨 지 않는 것만도 잘했다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 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 12:14)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 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 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롬12:17). 형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갚 은 요셉처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 들을 용서하라던 스테반처럼, 일개 로마 병정에 잡혀 십자가에서 갇은 모옥을 당 하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 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 다."(눅23:34)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처 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말에도 '선한 끝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 모든 이와 화평케 된 자 가 받을 복이 분명 있습니다. "화평케 하 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

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3:18).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화병 날까봐 이 렇게 위로하십니다. "너는 용서하고 그를 축복해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정말이 냐고요? 그렇다마다요. 성경에 이렇게 기 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 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 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하시니라"(롬12:19).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빛진 자입니다. 우 리는 그 분의 사랑에 빛진 자이며, 그 분 의 용서하심에 빛진 자입니다. 그러니 누 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으며, 누군들 용서 하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못 한다면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고서는 백 데나리온 빛진 자에게 빛을 독촉하는 꼴 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은 다 시 빛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 리라"(마18:35). 나에게 욕을 하나까? 나 를 저주하나까? 나를 사람취급 안 하나 까? 무시하나까? 그래봐야 한 데나리온이 나 되겠습니까? 내가 탕감 받은 일만 달 란트를 생각하세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 을 생각하고 그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가 주리거든 먹이고, 그가 헐벗었거든 입 히세요. 그게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우리 가 할 일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생사화복 중 생과 복을 취할 수 있 는 길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습 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약3:10~11). 그러니 우리 모두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 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충심교회

남는 건 사진뿐이잖아요!

지난 주, ‘경기남노회’가 열렸다. 노회의 올해 활동을 결산하고 특별히 미자립 지교회를 선정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틀째 되던 날, 모여든 목회자들은 함께 통일전망대에 올랐다. 어수선한 시국 속에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오르다보니 곧바로 높다란 철책이 시야 한가득 들어온다. 이로써 분단의 현실, 전쟁은 아직 끝난 것(終戰)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休戰) 있음을 되새기게 해주었다.

착잡한 마음으로 북녘 저 너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찰칵’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기념사진을 찍거나 셀카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그 때 익숙한 목소리가 목회자들을 불러 모았다.

“자, 여기로 모여주세요. 남는 건 사진뿐이잖아요!”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그 말이 이토록 묘한 울림을 준 적이 있었을까?

‘그래, 남는 건 사진뿐이지...’

우리는 곧잘 잊어버리곤 한다. 즐거웠던 시간, 행복했던 시절,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순간들을... 하지만 그날을 기록한 사진과 동영상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지난 소중한 시간들을 추억할 수 있게 된다. 돌아와 지난 사진첩들을 들춰보았다. 어찌나 우스운지, 또 어찌나 촌스럽고 어색한지. 정말 한참이나 배꼽을 잡았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의 사진첩에 과연 나는 어

떤 모습으로 찍혀있을지 궁금해졌다.

‘충성되어 보일까, 진정 헌신하는 모습일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모습일까?’ 성경엔 유독 여러 명단들이 등장한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출애굽한 각 지파와 그 자손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 성전을 지은 사람들,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다윗을 도운 용사들, 바울을 도운 사역자들 등등... 이것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명단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지극히 작은 희생과 헌신 하나까지도 낱알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진첩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업적 모두를 남기지 않는다. 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자동 삭제될 뿐이고, 오직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실들만 기록할 것이다. 얼마나 자신을 쳐 복종시켰는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따르려 노력했는지, 얼마나 복음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쉬움 속에 2016년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2017년엔 오롯이 더욱 충성된 모습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모습이 하나님의 사진첩에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고후5:9)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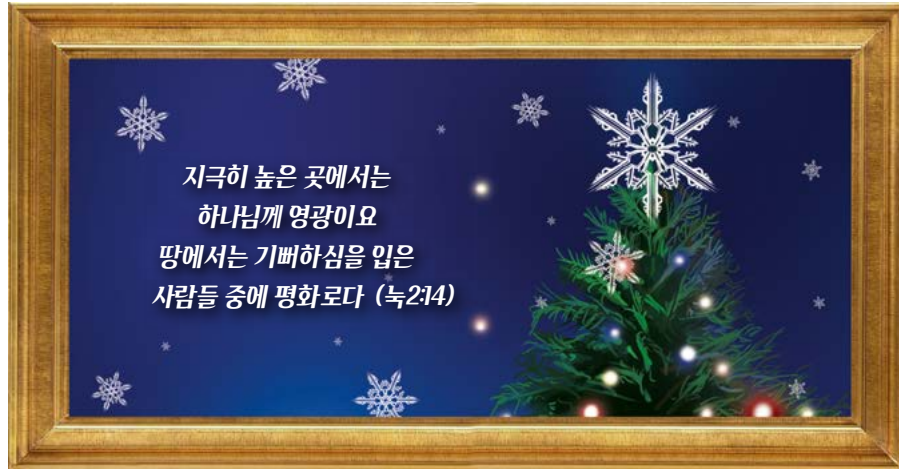
끝은 또 다른 시작!

수 년 동안의 혹독한 수련 끝에 마침내 검은 띠를 받는 제자에게 스승은 말했다. “너에게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다.” 제자는 마지막 대련이 있는가보다 생각했으나 그 시험은 대련이 아니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묻는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나?”, “수련과정의 마침이며, 스승님의 모든 것을 전수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아직 검은 띠를 땀 자격이 없으니 내년에 다시 오라고 말한다. 일 년 후, 스승이 똑같은 질문을 하자 제자는 “스승님의 뛰어난 무술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문파의 명예를 더욱 빛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답했다. 스승은 다시 내년에 오라고 했다. 일 년 후의 답이다. “검은 띠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고난도 무술을 위한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옳다. 검은 띠는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을 맞는다. 그러나 실상 한 해의 끝은 새로운 해의 처음과 맞물려 있음을 잊으면 안 되겠다. 잘했든 못했든,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마지막을 통해 새로운 처음을 맞는 것이다. 그러니 끝이라고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끝이라고 방심하거나 자만하지도 말 것이다. 바울처럼 뒤엎것은 잊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과 쫓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빌 3:13~14).

이제 새롭고 원대한 비전을 품어보자. 그리고 첫발을 잘 떼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하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회개하며 고치고, 잘한 것들은 더욱 발전시키면 된다. 실패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우리가 순종해야할 이유

몇 년 전, 한 일간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능력은 있지만 회사방침에 비판적이고 수용하지 않는 직원보다는 회사 방침에 최대한 따르고자 애쓰고 순종하는 직원이 인정받아 회사 내 중추적인 위치에까지 오르고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통계가 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로 순종이 있는 가정이 그렇지 않는 가정보다 5배나 더 행복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하나님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순종하여 받는 축복을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자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모리아 산으로 향했고,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문전박대에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물에 일곱 번 씻고 나오는 결단과 실행력을 보였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손이 번성하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 받을 것을 약속 받았으며, 나아만 장군은 나병 걸린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어 깨끗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우리는 순종함에 인간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우를 범하곤 한다. 하나님은 그저 성 돌레를 빙빙 돌고 나팔을 불기만 하

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삼만 명이 아닌 단 삼백 명 만으로 미디안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하시지만 인간의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당신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여호수아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에 길이 남을 대역사를 이루셨다. 반대로 초대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순간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불순종한 사울왕은 그 즉시 버림받고 말았으니 순종과 불순종의 결말은 말 그대로 천지차이다.

순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은 힘써 행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미워하고 비판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곧 순종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여 힘써 순종하자. 눈물로 순종의 씨앗을 뿌린 자,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날이 반드시 온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아름다운 마무리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선종’이란 용어를 접했다. 선종이란 죽음을 뜻하는 카톨릭 용어이다. 이는 선생복종(善生福終)의 준말로, ‘착하게 살다 복되게 죽는다’는 뜻으로, 좋은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란 뜻이다.

캐나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을 영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할머니는 자신과 조금이라도 서운한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병원으로 불러 서로 용서하며 화해를 하시고 소천하셨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다.

2016년이 저물어간다.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하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서로가 용서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용서였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용서를 배워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으면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

이고,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이다.

각자무치(角者無齒)란 사자성어가 있다. 뿔이 있는 짐승은 이가 없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나 복을 한꺼번에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뿔이 달린 소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가 있으나 뿔이 없다. 날개달린 새는 다리가 둘뿐이고, 날 수 없는 고양이는 다리가 네 개다. 예쁘고 아름다운 꽃은 열매가 별로고 열매가 귀한 나무는 보통 꽃이 별로다. 사람은 장점도 있지만 반드시 단점도 있으며 때로는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장점이 단점 되기도 한다.

은혜와 불평도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해득실을 따지니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 감사는 저절로 고백되어 진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 늘 생명의 말씀을 주신 목사님, 낳아주시는 부모님, 부족한 나와 결혼해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아름다운 마무리뿐 아니라 이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임택환 목사
cjcc1004@hanmail.net

:: 성경에서 배운다 ::

:: 참된 깨달음 ::

하나님께 투세!

한 강연에서 조승연 작가가 소개한 내용이다. 펜싱은 칼이 워낙 빨라서 찌른 사람조차 내가 제대로 찔렀는지, 빗나갔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오직 한 사람만 점수가 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칼을 맞은 사람’이다. 그래서 전통 펜싱은 칼을 맞은 사람이 ‘찔렸다’가 아닌 ‘찔렸다’는 뜻에 ‘투세’라는 단어를 외치고 ‘내가 맞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외친 그 사람의 무공이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한다.

2016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투세’를 외쳤을까? 한 해 동안 드린 수많은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심령 속 썩뿌리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찔린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내가 바꾸어야 할 문제점인 줄 통감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세’를 외치며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고 정작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더욱 나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까?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이를 감추기 위해 신하를 죽이는 자칫 왕권이 흔들릴법한 비겁한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은 이를 다윗에게 조용히 귀뜸 하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과감히 찔러내셨다. 하지만 하나님께 ‘투세’를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후 그 대가로 따라온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담담히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참된 회개를 보여주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하실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허락해주신 것이다. 사울은 스테반 집사가 순교 직전 선포한 설교에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신앙의 자부심에 찌름을 느꼈다. 하지만 이에 굴복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혈기를 내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 이에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더욱

강하고 직접적인 책망을 하셨고, 이러한 존철살인 앞에 사울은 그 동안 자신이 쌓아온 지식, 명예, 생각 모두를 내려놓고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선택했다. 이러한 그의 과감한 ‘투세’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보았으니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나 복음을 전해도 강력한 자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눅16:31) 그의 순복함 역시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으리라!

이제 우리는 지난 한해 우리를 찌른 ‘투세’의 말씀들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자. 그리고 다가올 2017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다시금 귀를 크게 열고 귀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찌르심은 우리를 아프게 함이 아니요, 우리가 ‘투세’를 시인하고 깨달음으로 인해 우리 신앙 무공이 한 단계 성장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산 위에 서서 행진하는 군대를 보면 앞에는 말을 탄 기병들이, 중간에는 전차들이, 뒤에는 보병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된다. 분명히 이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지휘관이 있음을 알게 된다. 해안에서 배 한 척이 순조롭게 부두로 들어오는 것은 그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광대한 우주를 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무수한 별들의 배치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운행되는 것과 태양의 출몰 등을 보고는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위대한 권능자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깨닫고 경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자마자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장엄한 선포를 하시며 천지만물의 기원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평신도 묵상노트 ::

진정한 친구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문을 매일 같이 도배하고 있는 부와 권력의 핵심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사람, 즉 친구를 몇이나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진정으로 자신들을 염려해주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바울에게는 정말로 많은 친구가 있었다. 그의 원대한 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친구, 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친구, 집과 재산을 내놓는 친구, 그가 세웠던 교회를 사심 없이 이끌어가는 친구 등 마음을 같이 하여 그의 인생 여정을 함께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그의 열정과 지혜의 근원인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다. 홀로 외롭게 하나

님 나라를 위해 투쟁할 때도 예수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였고,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을 주시면서 옆에 계셨다. 그는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선구자적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기에 극심한 환란과 고통이 많은 삶을 살았다. 그러나 늘 그의 오른손을 잡고 힘주시는 예수님이 계셨고, 뜻이 맞는 친구들이 그의 길에 분량만큼 동참했기에, 참으로 견딜만했고, 풍성했고, 행복한 삶이었다.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힘든 회사 생활을 견딜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친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존재다. 현대는 지나치게 가족(그것도 일촌 위주)과 이성간의 사랑만 중시하여, 우정, 충성, 의리 등의 소중한 가치를 등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타자들과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해야 행복해지고 건강할 수 있는 존재다. 일촌 가족이나 배타성을 전제

로 사랑하는 이성은 타자가 아니라 자שה 들어다보면 또 다른 나다. 오직 또 다른 나와 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나의 세계에만 머문다면, 외부와는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어 나는 병들고 만다. 그래서인지 온 세상이 가족과 이성간의 사랑만을 중시하며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건만, 지금처럼 솔로가 많았던 때도, 무너진 가족이 많았던 때도, 외롭다고 난리치던 때도 없었다.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바울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대하고 우정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너무나 부러워하며 우리에게 비결을 물을 것이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지 눈과 몸으로 보고 느끼지 않을까.

박소향
bp650624@naver.com

왕으로 나신 이는?

어떤 심리학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백화점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데이트, 공휴일, 캐롤송”이라고 답했으며,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늘날 성탄절이 상업주의, 감상주의, 쾌락주의에 밀려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존 데이빗(John David)이라는 사람은 12월에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Merry Christmas와 다른 하나는 X-Mas 라고 합니다. 이 X라는 기호는 그리스도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땅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X-Mas로 지키면서 돌잔치에서 주인공인 아이가 소외되듯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아닐까요?

우리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기쁜 소식 ‘Good News’ 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며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평화로다”(눅2:14). 이 아기예수의 탄생이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해보십시오. “주 예수여! 당신만이 그리스도시며 구주시며 소망이시며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이 행복과 평화를 소유한 모든 분들께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Merry Christmas!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년축복 기도성회

2017년 1월 3일(화) 저녁 8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의 02-533-9191